



## 무궁화호 위성 특집을 내면서

**이** 번 무궁화위성의 발사로 우리 나라도 이제 독자적인 통신·방송위성을 확보함에 따라 21세기 범세계적인 우주개발 경쟁대열에 당당히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세계 23번째로 상용위성 보유국이 되어 디지털 방송, 초고속데이터 통신, 화상회의 등 인공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진위성 운용국에 진입함은 물론 우리의 주권을 우주공간까지 확대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위성방송은 세계에서 미국, 프랑스에 이어 3번째이며 MPEG I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위성방송은 세계에서 최초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무궁화위성은 2000년대 고도정보사회의 첨단정보매체로서 국민문화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한반도와 중국동북부·러시아·연해주 등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에도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연구회 회지 『위성통신과 우주산업』의 이번호는 무궁화위성의 발사에 즈음하여,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될 무궁화위성사업의 추진과정을 돌아봄으로써 교훈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무궁화호 위성 특집』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무궁화호 위성사업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서 「무궁화위성 이렇게 만들었다」,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무궁화위성은 이렇게 이용되어야 한다」, 국내위성사업의 육성방안을 위하여 「국내위성사업은 이렇게 육성되어야 한다」 등의 제하로 관계 전문가, 교수님들에게 어렵게 육고를 청탁하여 특집으로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또한 무궁화호 위성과 함께 길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임을 의심치 않은 바입니다.

본 특집의 구상단계에서는 폭 넓고 깊이 있는 터치로서 위성정책의 21세기를 전망하는 와이드 편집을 시도하였으나 지면형편에 따라 다소 축소하게 된 점이 매우 아쉽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특집이나마 무궁화호 위성사업을 이해하게 되고 선진위성 운용국의 전문가의 일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대하게 펼쳐질 차세대 위성사업 및 「국가우주기술훈발 중장기계획」등 범국가적인 위성관련 사업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 특집을 위하여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여서 육고를 집필하여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무궁화호 위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및 관련 기관에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위로와 깊은 감동을 드립니다.

특집위원장 박 효 달